

광주형 3대뉴딜 앞세워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도한다

민선 7기 이용섭호 역점 사업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본격 가동

지역경제 살리고 미래 먹거리 마련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9월 양산

이용섭 시장이 이끌고 있는 민선 7기 광주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광주의 미래를 바꿀 대변화를 꿈꾸고 있다.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주도형 도시로 체질을 개선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다.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정책은 '광주형 3대 뉴딜'로,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인공지능 중심의 'AI디지털 뉴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AI그린 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상생과 시민 안전의 광주 정신을 담은 '휴먼뉴딜' 등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지난해 광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을 선점하고, 전국 최초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선언하는 등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다"며 "올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형 3대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주를 국내를 넘어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휴먼 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오는 9월 문을 여는 10만대 생산 규모의 완성차 공장 가동이다.

23년만에 국내에 건설되는 '광주형 일자리' GGM자동차공장은 지난 5일 공장건설과 설비설치, 시운전을 완료하고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 2014년 6월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7년 만이다. 공장 준공식은 이달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9월께 양산에 돌입한다. 이미 신규 고용 창출만 520여 명에 이르고,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채용된다. GGM과 관련한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용섭 시장은 노동계 반발, 자금난 등 각종 어려움으로 수차례 좌초위기를 겪었던 이 사업을 특유의 추진력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이 뽑은 올해의 광역단체장 우수정책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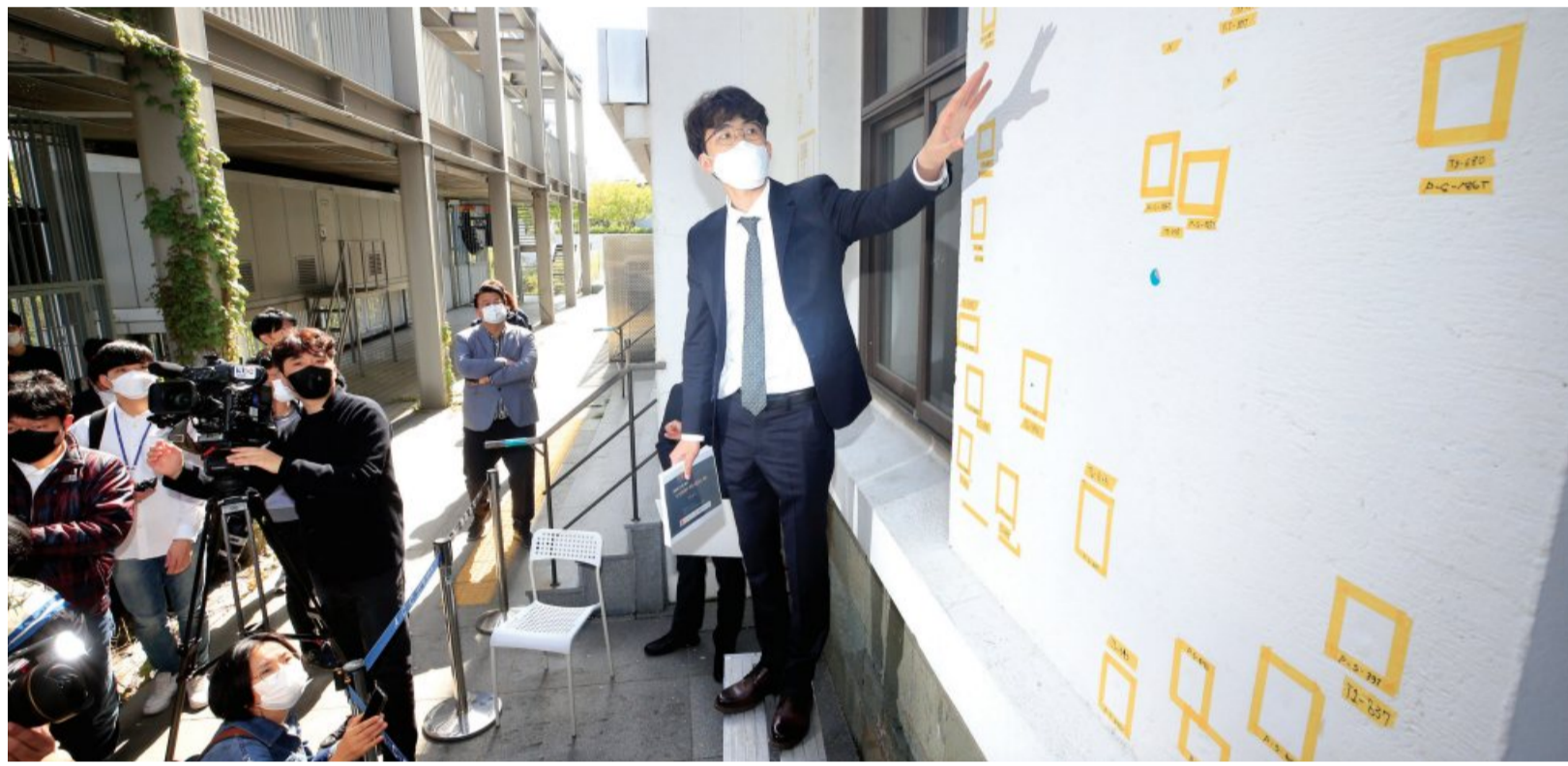
올해는 또 광주형 3대 뉴딜사업을 이끌고 있는 'AI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원년이기도 하다.

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내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4116억원(10년간 1조 원)을 투입해 국내 유일 '국가 AI 융복합단지'와 세계적 성능의 그래픽 처리장치(GPU) 기반 '국가 AI 데이터 센터' 등 AI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

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AI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64개 과제에 1조 9800여억원을 투입하고, 신규 일자리 3만 여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올해 광주형 3대 뉴딜 중 또 다른 중심축인 AI-그린뉴딜 사업에도 집중한다. 시는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력 전력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기업 RE(Renewable Energy) 100'과 2035년까지 광주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광주 RE 100'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자리 잡는 게 최종 목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경찰청사 뒤편에서 탄두가 발견된 지점을 탄흔 조사 실무자가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이날 옛 전남도청과 주변 건물에 남아있는 5·18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분관 서무과 등 10개의 지점에서 탄두가 발견됐고, 탄흔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70여 개 구멍이 확인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옛 전남도청서 계엄군이 쏜 M16 총탄 나왔다 탄두 10개 포함 탄흔 535개 발견

41년 전 5월 27일 새벽,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진입 작전에 나섰던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향해 쏜 M16 총탄이 나왔다. <2020년 12월 29일 광주일보 6면> 계엄군의 유혈 진입작전 상황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6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3일 옛 전남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옛 전남도청 내·외부에서 535개의 탄흔을 발견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청복원단은 535개 중 10개 탄흔에는 1980년 5

월 당시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탄두) 10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10개의 총탄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내 서무과 벽(8개)과 경찰국 외벽 2곳에 박혀있었다. 복원단은 이 중 5개(서무과 외벽 3개·경찰국 2개)의 탄두를 빼내 분석한 결과, 서무과 탄두의 경우 1980년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M-16 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525개 탄흔 중 71개는 총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탄흔이 유력하다는 게 복원단 설명이다.

복원단은 이외 454개 탄흔에 대해서도 탄흔으로

불 만한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 탄흔에 대해서는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을 거쳐 탄흔 여부를 최종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원단은 또 X레이 촬영 방식으로 전남도청 본관 앞 은행나무(37개)와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2개)에서도 총탄으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을 발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 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화 직격탄 우려 전남도 "용납 안돼" 강력 반발

125만t 1년반~2년후부터 방출

정부 "필요한 모든 조치 동원 대응"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우려와 어민 등 자국 내 반발 여론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끝내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3면>

125만t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1년 반~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해양 배출하는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최인철국인 한국, 그중에서도 국내 수산물 생산 1위의 전남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정부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해양 방류 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희석한 뒤 방출한다는 것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 등 관련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방출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일본이 해양 방출을 강행할 경우 오는 2051년까지 장기간 방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정부 연구기관 분석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 한 달 이내 전남 앞바다 등 서해와 제주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앞서 나온 바 있어 지역 어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도 이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일본이 해양 방출을 강행할 경우, 모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남도는 이날 김영록 지사 명의의 입장문에서 "125만t이 넘는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것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염수 방류 결정은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철 국민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로 규정된 뒤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 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대형산불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일으킨 산불,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산불조심기간 3월-4월

2000년	2005년	2013년	2019년
4월 7일	4월 4일	3월 9일	4월 4일
동해안산불 (삼척 등 5지역)	양양산불 (낙산사피해)	포항·울주산불 (도사산불)	강원 동해안 산불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360억원 피해	276억원 피해	95억원 피해	1,291억원 피해

광주광역시 GWANGJU CITY